

# 새 심장으로 얻은 두번째 삶 '나눔'의 아름다움 노래합니다



호신대 베이스 임해철 교수, 가곡 음반 '아모르' 발매 (사랑)  
2011년 심장이식 수술...장기기증 문화 확산 위해 기부

베이스 임해철(59) 호남신학대 교수는 요즘 무대에서 노래할 때면 울컥해 질 때가 많다. 관객들에게 들리지 않으려 애를 쓰기도 한다. 그는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

임 교수는 지난 2011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100일째 되던 날 그가 노래를 할 때 무대도, 객석도 울음 바다가 됐다.

임 교수가 첫 독집 음반 '아모르(사랑)'를 냈다. 음반에 적힌 3줄의 글귀가 통쾌하다. '저는 2011년 8월 심장 이식을 받았습시다. 본 음반을 기증자와 그 가족에게 바칩니다. 장기 기증 문화의 확산을 기원하며.'

임 교수가 심장에 이상을 느낀 건 지난 2009년 4월 즈음이었다.

"어느날 갑자기 숨쉬기가 곤란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심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이런 심장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결국 심장 이식을 결정했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은 상태라 쉽지 않았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나 긴장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머물 때면 이식 수술을 받았던 이들이 병상까지 찾아와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이번 음반에는 '산노을', '초혼', '비목', '외갓길' 등 아름다운 우리가곡 12곡이 담겼다. 임 교수는 CD가 나오자마자 오랫동안 입원했던 전남대 병원과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아산병원 주치의에게 가장 먼저 보냈다. 심장을 제공받았던 건강대장기기식센터를 통해 제공자 가족에게도 전달했다.

"저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신 분과 그 가족들 덕에 전 두번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원래는 기증자와 수혜자를 노출시키지 않는데 건강대 측에서 가족들에게 CD를 전달하셨다고 해요. 이번 음반을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으려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병원에 갈 때마다 꼭 대기자들을 만나는데 이식을 기다리다 저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실 때, 권투선수 최효삼씨가 세상을 떠날 때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시들해졌어요."

자비로 2000장을 찍은 그가 지인들에게 CD를 보내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장 당 5000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10장 값을 내고 CD 한장만 가져가는 이도 있었다. 2~3일 새에 100만원이나



가곡음반 '아모르'

모였다.

"삶의 자세도 많이 바뀌었어요. 함께 나누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교도소와 소외시설 등에 자주 서머 노래하고 있어요. 저에게 노래로 격려받은 분들이 또 남에게 베푸는 모습이 참 좋습시다. 희망이란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음반을 내면서도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연세대 성악과 출신으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수석 입학하고 한국인 최초로 베르디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임 교수는 국립오페라단 등과 협연무대를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호신대 교수로 부임한 후에는 오페라, 독주회 무대와 함께 광주오페라단,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에서 직책을 맡으며 문화행정가로도 활약했다.

임 교수는 이번 음반의 수익금을 전남대 '학마을 봉사회'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자신이 심장병으로 처음 입원했고, 수차례 응급실 신세를 진 전남대 병원이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단체다. 또 오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심장학회에도 참여, 전 세계 의료진 앞에서 공연을 하고 음반도 전달한다. 음반 문의 010-8602-03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 전면 시행

중학교 배정 다자녀가정 학생 우대...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토론과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중학교 배정 때 다자녀 가정의 학생은 우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운영평가, 지정조수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자녀 가정 학생의 중학교 배정 시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해 졸업한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을 때 등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는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요건도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회총)는 이런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학력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30세 이상 16%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

인하대팀 국제학술지에 논문

계속되는 미세먼지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때문에 서울·경기지역에서만 한해 30세 이상 성인 1만5000여명이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도권 연간 사망자수(30세 이상)의 15.9%를 차지하는 수치로,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우리 주위의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한다. 1mm의 1000분의 1이 1μm(마이크로미터)인데 자름이 10μ

m보다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한다. 영어로는 10μm보다 작은 먼지입자라는 말을 줄여서 PM10이라고 한다. 또 미세먼지 중에 자름이 2.5μm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PM2.5라고 부른다. 머리카락의 자름은 대략 80μm이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팀은 아주대 환경공학과 김순태 교수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등의 대기오염(분진)이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회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세계 사망자 8명 중 1명은 실내외 공기오염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즉 700만명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370만명이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에 숨졌다 분석이다. 이 중에서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폐암 등이 심각한 질환으로 꼽혔다. 이런 이유로 WHO 산하 암연구소는 미세먼지 자체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정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 軍 장병도 휴대전화 사용 가능

군 장병이 병영 내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제도가 20일부터 시작됐다.

국군복지단은 이날 젊은 장병이 휴대전화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군 장병 휴대폰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휴가 등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는 장병은 영내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군 복무 기간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해 휴가 기간에도 불편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를 임대한 장병은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게 되며 휴대전화를 반납할 때 남은 금액은 돌려받는다. 출

타 중인 장병이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부대에서 장병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복지단은 설명했다.

영내에 있는 장병도 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안을 위해 마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와 영상 통화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기능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단은 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부대 마트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작년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다.

## 세월호 인양여부 내일 결정 해수부 10월부터 해상작업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을 내려달라고 20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중대본은 22일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해수부는 10월 초부터 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 검토 태스크포스의 '인양 가능' 결론과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의 '세월호 온전한 선체인양 촉구 결의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내용 등을 종합해 인양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기춘 해수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선체인양 결정이 전방위다"며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해수부는 인양 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5 밝은광주안과 **빛창 공모전**

# 빛 드는 창에 사랑을 그리다

지역민의 눈 건강을 지켜온 밝은광주안과가 빛창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빛창 공모전은 '빛이 드는 창에 쓰는 글'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20~30자 짧은 글을 선정해 밝은광주안과 눈모양빌딩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시민 여러분의 아름다운 글을 기다립니다.

<b>공모일정</b>	<b>대상내역</b>
접수기간 : 2015. 4. 20 ~ 5. 13	대 상 (1편) 문화상품권 30만원
발 표 일 : 2015. 5. 15(금)	최우수상 (1편) 문화상품권 20만원
<b>접수방법</b>	우 수 상 (2편) 문화상품권 10만원
밝은광주안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가 작 (10편) 문화상품권 3만원
<a href="http://www.best-lasik.co.kr">www.best-lasik.co.kr</a>	
<b>공모주제</b>	
사랑, 여름, 바다, 휴가 등	

**밝은광주안과**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NAVER** 백세생활건강    ▶ ▶ ▶    ▶ ▶ ▶    ▶ ▶ ▶    ▶ ▶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